

축사

김 태 호
경상남도지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지도자님께서 대한민국 경남에 모여 「제7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위해 우리 경남을 방문하신 일본의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힘써 오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패널리스트와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일 양국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것입니다. 2003년부터 한·일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 온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협력과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양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복지의 여건과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욕구는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사회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개발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과 훈련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께서 펼쳐 오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은 정말 가치 있는 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가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는 올해 도 전체 예산의 24.3%에 해당하는 1조 4,450 억원을 복지분야에 배정하여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복지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지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지도자 간의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祝辞



金 台浩
慶尚南道 知事

皆さん!お会いでき嬉しく思います。

今日、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が韓国の慶南に集まり「第7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ことは非常に意味深く、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特に、この行事のために慶南を訪問された日本の社会福祉のリーダーの皆さんを心より歓迎します。日ごろから社会福祉に対する使命感と奉仕精神で、社会福祉発展に力をつくしてこられた韓国社会福祉士協会の趙聖鐵会長をはじめとする関係者の皆さん、開催に尽力されてこられた主催者のユニバーサル財団と実行委員会、そして、ご参加いただいたパネリストと来賓の皆さん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尊敬する日韓両国の社会福祉リーダーの皆さん!

私たち韓国と日本は地理的に隣接しているため、多様な分野でお互いの協力を通じ、共存できる道が多いと思います。2003年から日韓両国で交互に開催して来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も、社会福祉分野での協力と専門性を増進し、両国の社会福祉の発展に大いに役立つと期待します。

皆さんご存じのように、この間、急速な社会発展によって福祉環境に多くの変化が生まれました。このため社会福祉に対する国民の理解とニーズは広がっていますが、政府主導の社会福祉政策には限界があります。したがって、社会福祉の従事者である皆さんの役割が非常に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

韓国社会福祉士協会は、国民の福祉向上のための専門知識と技術開発と普及し、社会福祉士の資質向上、教育訓練など多くの活動をして来ました。

難しい条件の中でも社会福祉のリーダーの皆さんが、広げてこられた各種社会福祉事業と活動は、本当に価値のある事であり、社会を支える原動力になってきました。心から深い敬意を表します。

慶尚南道は、本年も慶尚南道の予算全体の24.33%にあたる1兆4,450億ウォンを福祉分野に割当て、元気で幸せがあふれる福祉社会実現に向けて最善をつくしています。

そして「南海岸時代プロジェクト」を重点的に推進し、2020年道民所得4万ドル時代を開いて、道民の皆さまが、幸せで豊かさを楽しめる「福祉慶南」を作っていきます。社会福祉のリーダーの皆さんが多大な関心を寄せられ、支援される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最後に、今日のこの行事が、日韓両国の社会福祉発展に大事なアイデアを提供し、社会福祉のリーダー間の友情と協力を堅める良いきっかけになるように願いながら、皆さんのご健勝を祈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